

정보 TIP

SKT, 토씨 가입 고객 경품행사

SK텔레콤은 다음달 27일까지 유·무선 인맥관리 서비스(SNS) '토씨' 영역제에 가입하는 고객 1천3명에게 '햅틱폰'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연다.

행사기간 중 토씨 영역제에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삼성 햅틱폰, 선착순 1천명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토씨' 가입은 홈페이지(www.tossi.com)나 무선인터넷(7055+Nate), 고객센터(1599-0011)에서 가능하며 당첨 여부는 6월10일 토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LGT, 오즈 요금제 이벤트



LGT텔레콤은 3세대(G) 데이터 서비스 '오즈(OZ) 요금제(월 6천원)를 홍보하는 '지폐에서 숫자 6000을 찾아라'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한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의 일련번호 가운데 숫자 '6000'이 있는 지폐의 일련번호와 고객 정보, 지폐 사진을 오즈 체험 사이트(oz.lgtelecom.com)에 등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는 지폐 해당 금액의 100배, 2등 50명과 3등 100명에게는 각각 10배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점의 달 행복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메가TV' 최신 개봉영화 방영

KT의 IPTV '메가TV'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최신 영화를 극장중영 한달 후 제공한다.

KT는 이와 관련, CJ엔터테인먼트와 최신영화 콘텐츠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메가TV는 다음달에는 차태현·하지원 주연의 '바보'와 송승헌·권상우 주연의 '숙명'을 프리미엄 영화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외에 '왕의 남자', '살인의 추억', '너는 내 운명' 등 CJ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00편 이상의 인기있는 대여용 작품들도 메가TV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메가TV는 워너브러더스와 소니 픽처스의 최신 영화들을 DVD 출시와 동시에 상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겁나요.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경기도 안양에서 실종된 이혜진·우예슬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일산에서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이 발생하면서 나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이 경찰의 못미더운 행태까지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분노와 함께 가슴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전자 태그 시스템



아이 등·하교길 안전 걱정마세요

전자태그 책가방에 부착, 자녀 위치 문자로 체크

KT 어린이 안심 서비스 광주·전남 9천여명 가입

◇학교 앞 학부모들 북새통=25일 낮 12시 광주시 동구 계림초등학교 후문. 10여명의 학부모들이 서성이고 있다. '혹시 내 아이가 안좋은 일을 당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에 하교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아이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직접 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면 할머니를 동원하는 것은 물론, 마음에 맞는 엄마들 5~6명이 조를 짜서 저학년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기도 한다. 하굣길에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학원을 일부러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 조 영(38·광주시 동구 계림동) 씨는 "원래 학기초에는 1학년생 엄마들이 많이 와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최근 어린이 납치사건 이후 저학년 학생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할머니들까지 총출동해 학교 앞으로 아이를 데리러 온다"고 말했다.

◇KT 어린이 안심 서비스=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T에서 출시한 '어린이 안심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KT 어린이 안심서비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목격자에 잘 도착했는지, 집에 있는 벌일 없이 돌아오고 있는지 부모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어린이 안전 관리 서비스다.

학교나 학원, 아파트 등주변에 설치된 감지기(AP)가 아이의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인식하면 즉시 '귀 자녀가 OO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또는 '귀 자녀가 OO초등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가 언제 학교에 도착했고 언제 집으로 출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학부모는 KT가 발급한 전자태그를 아이들의 책가방에 부착만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또 교사가 학부모에게 각종 공지 사항이나 가정통신문, 학사 일정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학부모와 교사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기도 한다. 아울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모든 교통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어린이 교통상해 보험도 가입해 준다.

◇광주·전남 두달새 9,254명 가입=어린이 안심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두달새 광주·전남지역에서만 9천254명이 가입했다.

대부분 초등학교의 단체 가입이다.

현재 광주 월계초 989명을 비롯해 산월초(364명), 동림초(250명), 문정초(250명) 등 광주에서만 8개교 2천417명 가입했다. 전남지역 가입 학교는 목포 서부초(968명), 목포 신흥초(949명), 영광중초(729명), 광양 중진초(90명) 등 11개교 6천837명이다.

KT 전남본부에 따르면 가입을 위한 학교 측의 설명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개별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어 이 서비스 가입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월 4천원)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자녀의 위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전남본부는 해당 학교의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갖고 학부모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유료여서 학부모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KT전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납치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심서비스 가입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가히 폭발적이다"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1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상해보험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똑 같은 실수 반복하는 까닭은?

“실수 통해 실수 하는 법 배우기 때문”

캐나다 연구진 밝혀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를 통해 또다시 실수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라이프사이언스 닷컴이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립대 연구진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날듯 말듯 하면서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이른바 '혀 끝에 맴도는(TOT: tip of tongue)'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계간 심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TOT 현상은 두뇌가 정확한 단어에 접근하고서도 이와 관련된 소리 정보를 끄집어내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연구진은 이런 현상이 어휘력과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2중언어 사용자들이나 노령자, 뇌손상자들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TOT 현상으로 안타까워 하다가 원하던 단어가 생각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다시는 그 단어를

잊지 않을 것 같지만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TOT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대상을 기억하지 못한 시간이 두뇌에 '실수 회로'를 만들어놓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30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여러 개의 설명문을 제시하고 ▲답을 안다 ▲답을 모른다 ▲TOT 등 세 가지 답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주문했다.

TOT라고 답한 학생에게는 단어가 떠오를 때까지 10초, 또는 30초의 시간을 주고 생각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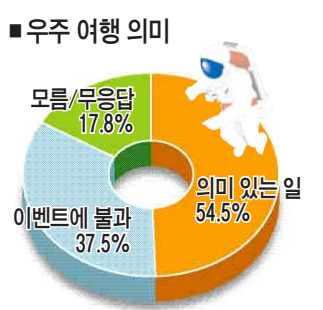
이를 후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 때 학생들은 같은 단어를 'TOT'를 겪는 경향을 보였으며 30초의 시간을 보냈던 학생이 정답찾기에 해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두뇌는 계속 '실수 회로'를 뒤지게 된다"면서 "답을 찾아 헤맨 시간이 '오류 학습' 시간으로 불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소연씨 우주 여행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 있다 54.5%, 이벤트용 37.5%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의 우주여행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의미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10명중 8명이 긍정 평가했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가 '의미 있는'이 들었지만 우주산업의 첫발을 내디딘 의미있는 여행이었다'고 응답했다. '여행에 치중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낭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의견은 37.5%로 나타났다.

'의미 있다'는 응답은 남성(53.7%)과 여성(56.0%) 모두 절반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62.6%)와 50대(65.0%)는 긍정 평가한 반면 20대(55.7%)와 30대(64.1%)는 부정 평가가 많아 세대별 의견차가

뚜렷히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80.0%)을 비롯해 대전·충청(71.2%), 전북(70.8%), 서울(56.4%)은 의미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인천·경기(54.2%)는 절반 이상이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Advertisement for Sony Bravia televisions, featuring a large TV and promotional text for a customer appreciation event.

Advertisement for 'Cheongjeonghoosu' real estate development, showing a scenic view of a residential area and contact information.